

## 프랑크푸르트 시청 환영식 답사

존경하는 페트라 로트 시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역사가 살아 있는 이곳 황제실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1848년 국민의회가 소집된 독일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유럽의 관문이자 경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자유와 개방의 시대정신을 앞서 실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의 창조적 역량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프랑크푸르트는 우리 국민에게도 각별한 도시입니다. 1960~70년대 우리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해서 현재 5천여 명에 이르는 한인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6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 도서전 관계자들을 만나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조만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작품이 지닌 독창성과 깊이를 독일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로서 4박 5일간의 독일 방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두 나라의 돈독한 협력관계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거듭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에게 베풀어 주신 독일 국민의 각별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프랑크푸르트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